

陶 隱 文 學 考

李 炳 赫

- | | |
|-------------|------------------|
| I. 序 言 | 2. 陶隱의 詩 |
| II. 陶隱의 略傳 | 3. 陶隱의 文 |
| III. 陶隱의 文學 | 4. 高麗漢文學과 陶隱의 位置 |
| 1. 陶隱의 文學觀 | IV. 結 語 |

I. 序 言

高麗時代의 漢文學을 張維(宣祖 丁亥 1587~仁祖 戊寅 1638)는「我朝의 文章은 크게 高麗朝만 못하다」했¹⁾, 金萬重(仁祖 丁丑 1637~肅宗 壬申 1692)은「本朝詩의 力量이 前朝보다 못하다」²⁾고 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高麗朝의 漢文學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高麗漢文學의 研究 傾向을 보면 대개 武人執權期의 漢文學에만 치중하여 온 느낌이 없지 않다. 때문에 筆者는 麗末 儒·佛交替期의 漢文學을 보기 위해서 三隱을 中心으로「高麗末期의 漢文學 研究」³⁾라는 論文을 發表한 일이 있다. 여기서 三隱이라 했지마는 三隱에 대해서는 두 가지 說이 成立되며, 거기에 따라 그 性格도 다르다. 즉, 卒年에 따라 三隱閣에서 奉享하는 圃隱, 牧隱, 冶隱이라는 說과 나이에 따라 牧隱, 圃隱, 陶隱이라는 說이다. 여기서 순서는 누가 먼저이긴 문제삼을 성

1) 張維：谿谷漫筆卷之一，我朝之文大不如前麗。

2) 金萬重：西浦漫筆下，本朝詩力量不如前朝。

3) 拙考：高麗末期의 漢文學 研究(東亞大 大學院論文集 1.1977.11.)

질이 못되고 다만 前者인 圃·牧·冶 三隱이라 하면 道學的인 面이 강하고, 後者인 牧·圃·陶 三隱이라 하면 文學的인 面이 짙다. 朝鮮朝에서는 性理學이 강조되었던 때이므로, 特히 嶺南學派에서는 前者를 많이 일컬어왔던 것 같다. 筆者도 전에 쓴 論文에서는 儒·佛交替期の 漢文學의 性格을 效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前者를 택하는 것이 效果적일 것 같아서, 前者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文學的인 面에서 볼 때는 冶隱보다는 陶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또 陶隱文學이 究明되어야 麗末漢文學의 일반적인 성격도 이해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陶隱의 略傳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의 文學觀과 그의 詩文, 나아가서 麗末에 있어서의 그의 文學的인 位置를 살펴보려 한다.

II. 陶隱의 略傳

陶隱의 文學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生涯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崇仁이요, 字는 子安이며, 號는 陶隱이요, 本貫은 星州이다. 그는 高麗 忠穆王 3(1347)년에 京山府(星山府) 龍山里에서 二男三女中 만으로 태어났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賢婦人이었는데, 陶隱이 쓴 「先大夫人行狀」⁴⁾에 보면 그 어머니의 姓은 金氏로 先代는 鷄林 彥陽 사람이다. 본래 孝誠이 뛰어난 분으로, 華侈를 배격하고 紡績에 힘쓰며, 첫닭이 울면 일어나 앉아서 「金剛盤若經」, 「華嚴行願品」을 의우는 것으로 日課를 삼았다. 말인 陶隱에게는 「當力學不倦」을, 둘째인 普漢에게는 「射御當善」을 경계했다. 陶隱은 이러한 賢淑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후일 大文人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13세(恭愍王 9, 1360)에 監試에 合格하였고, 15세에 登第하여 肅雍府

4) 陶隱集卷 5.

丞을 除授 받았다. 지금도 그의 15세 때 지은 詩가 남아 있다.

白日林居遠(白日은 시골 마을에 멀고,)
 丹心魏闕懸(단심은 개궐에 달렸네.)
 縱橫胡蕩亂(요란하게 오락케 말 띄고,)
 聲息羽書傳(羽書는 소식 전해 오는구나.)
 鍾鼎多銘刻(鍾鼎에는 공을 많이 새기고,)
 干戈幾歲年(난리는 몇 해나 겪었던고.)
 松都根本地(松都는 본래 서울이라,)
 會見凱歌旋(마침 凱歌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리라.)⁶¹⁾

15세 作品으로는 너무나 早熟한 것이다.

20세(恭愍王 16, 1367)에는 成均博士가 되었다. 즉, 恭愍王이 成均館을 改創하고 牧隱 李穡을 大司成을 삼고, 圃隱 鄭夢周, 楊若齋 金九容, 貞齋 朴宜中 등과 함께 學官을 兼하게 했는데, 이로해서 儒學과 文風 振興에 힘쓰게 되었다. 壯年에는 뜻이 높아 申不害, 韓非子, 佛陀, 老子 等에 대해서 듣고 보았으나, 후에는 聖謨가 寂寞하게 된 것을 슬퍼하여 君子儒를 찾기도 했다.⁶¹⁾

23세(恭愍王 19, 1370)에는 進德博士를 兼任하였다. 이 때 高麗에서 文士를 選拔하여 中國의 科擧에 應試하게 하대 陶隱이 首席으로 選拔되었으나, 나이가 25세 미만으로 보내지 않았다. 25세에 禮儀散郎, 藝文應教, 門下舍人을 歷任하였고, 26세에는 成均直講이 되었다. 28세(禔王 1, 1375)에 奉常大夫 典理聰郞 寶文直提學 知製教 兼春秋館編修官이 되고, 金九容, 鄭道傳과 함께 北元의 使臣을 물리치자는 上疏를 올려 京山府에 귀양갔다가, 30세(禔王 3, 1377) 7월에 풀려나와 成均司成을 제수받고 右司議大夫로 轉任되었다. 이 때에 同僚들과 上疏하여 守令의 임명문제, 各道의 防備문제, 賜牌의 폐단 등을 지적하여 그의 政略을 피력하기도 했다.

31세에는 密直提學이 되었고, 37세에는 藝文館提學을 拜授했다. 39세

5) 陶隱集 2. 辛丑仲冬大駕南狩。

6) 陶隱集 2. 示館中僚友：壯年空有志 獨立竟無徒 既見申韓用 仍俛佛老俱。
聖謨還寂寞 吾事可嗚呼 且問座中友 誰爲君子儒。

(禡王 12, 1386) 9월에 同知密直事로서 門下評議 金湊와 같이 賀正使로 中國에 갔다가, 40세에 歸國하여 6월에 百官의 冠服을 華制로 할 것을 建議하고, 士大夫의 祠堂에 제사지낼 것도 건의했다.

41세(禡王 14, 1388)에는 李仁任의 姻族이라 하여 通州로 杖流하였다가 10월에 풀려나와 簽書密直司事가 되었고, 門下侍中 李牧隱의 副使로 同知密直 金士安과 함께 賀正使로 中國에 갔다. 42세에 藝文館提學을 배수했다. 또, 昌王 때 朴天祥, 河崙 등과 永興君 環의 眞僞를 辨論하다가 誣告에 坐罪되어 司憲이 極刑에 처하기를 請하니 陶隱은 몸을 피하고 아들 次若이 대신 곤욕을 당하다가 朴天祥 등은 遠地로 유배되고, 陶隱은 書筵에 赴任하게 되었다. 이에 司憲이 彈劾하므로 陶隱은 辭讓했으나 允許해 주지 않았다. 이에 諫官 具成佑, 吳思忠, 南在, 沈仁鳳, 李堂 등이 彈劾하여 京山府에 귀양갔다가, 12월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彈劾의 主된 內容은 不敬(不忠), 不孝이다. 不敬이란 것은 陶隱이 李仁任, 林堅味와 같은 黨이란 것이고, 不孝라는 것은 父母喪中에는 掌試를 못하는 것인데 陶隱이 監試試官을 求해서 된 것과 母喪에 百日도 못되어 吉服으로 文宣王廟에 들어가 明倫堂에 앉아 肉食을 하여 人紀를 부너뜨렸다는 것이며, 또 牧隱과 中國에 갔을 때 買賣의 일로 三韓士大夫의 체면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陶隱一生에 重大한 사건이었다. 牧隱의 「蓋鑑嘗愛崇仁文章 其再上踐意欲救之也」⁷⁾라는 것을 보면 牧隱은 그 救出에 힘썼고, 權近은 적극적으로 구출에 나섰다. 즉, 陶隱이 母喪內에 試員이 된 것은 그 아버지 元具가 늙고 병들어 生前에 아들 掌試의 榮光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中國에서 買賣했다는 일은 指揮인 陳氏는 그 妻가 陶隱의 妻의 宗族인데 그 집에 가려면 市장을 지내야 하고, 또 觀遊하고자 路上으로 가게 되매 陶隱과 不和한 이가 誣陷했는데, 듣는 이는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의 문장을 보더라도 용서하자면서 「臣은 비록 崇仁과 더불어 같이 重責을 입어 죽어도 恨이 없을 것이요, 앉아서 崇仁이 誣告로 罪를 받는 것을 보고 지위를 탐내고 위임

7) 高麗史列傳 28. 李穡。

을 두려워하여 구차히 緘默을 지키고자 아니합니다」⁸⁾고 했다. 그러나, 伴行 通事 宋希正과 私僕 白仁에 물어 崇仁이 白金과 苧麻布를 갖고 시장에 들어가 彩段 16匹, 絹 20餘匹, 木綿 5匹, 色絲 5·6斤을 샀다고 供辭를 받았다 하고, 또 陶隱의 다섯 가지 罪를 들어 權近과 朋比라는 上疏가 있기도 했다. 사실 이 일은 자세히 들춘 필요도 없고, 자세히 알 길도 없지마는 「崇仁이 비록 재주가 있으나 行身인즉 실로 많은 바가 많으니 權近의 論함이 至公하다고 할 수 없다」⁹⁾고 한 것이라든지, 처음 高麗史 편찬 때에 이런 內容이 削除되었다가 후에 개찬할 때 편입되었다¹⁰⁾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43세(恭讓王 2, 1390) 4월에 尹穉, 李初의 獄事관계로 吳思忠의 彈劾을 받아 5월에 淸州 감옥에 被監되고, 6월에 水災로 인해 안치되었다.

44세 正月에 귀양에서 풀려나와 11월에 同知司事가 되었으며, 鄭圃隱, 李牧隱과 國朝實錄을 편찬했다.

45세(恭讓王 4, 1392)년 正月에 知密直司事로 同知春秋館事가 되었다. 4월에 鄭夢周一派라고 해서 順天으로 流配되었는데, 同年 8月 鄭道傳 南閣이 보낸 教書使 孫興宗, 體駁使 黃居正에 의해서 南平(羅州郡)에서 杖殺되었다. (그 해 7월에 高麗도 망했다). 이 때 죽게 된 것도 「鄭道傳이 崇仁의 文章을 질투해서 죽게 했다」¹¹⁾고 한다.

陶隱은 生活面에서 不幸이 많았던 것 같다. 「몇 해 동안에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 자신도 또한 流落하였으니, 한 평생에 곤궁함이 어찌 나와 같은 이가 있겠는가」¹²⁾ 하고 詩題目에서까지 말하고, 「돌아가서

8) 高麗史列傳 28. 李崇仁: 臣寧欲與崇仁 同被重責 雖死無恨 不欲坐見崇仁 以誣得罪 而貪位畏威 苟容緘默也.

9) 前掲書: 崇仁 雖有才 然行己 則所失固多 近之論教 亦不可謂至公.

10) 世宗實錄卷 第50 庚申條, 初修高麗史之時 創近教崇仁之文 近季良之改撰也 疎書之 然其事過情 此史亦未成之書 若改修之則當削之.

11) 前掲書: 循曰 鄭道傳 嫉崇仁文章 令致死 非死於忠者也.

12) 陶隱集 2. 旅窓晨起獨酌 醺然攬筆書懷 用以自怡 撫膝長吟 且復悲惋 嗚呼涉歲之間 妻亡子奴 身又流落 一世之窮 豈有如僕者哉 雖然涸園受鼓盆 東門吳不憂 勉思故人 亦用自寬(詩의 題目임).

농사나 짓는 것이 좋겠지마는 負郭田도 없는데 어찌하랴」¹³⁾고 한 것을 보더라도 가난한 일생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또, 交遊關係를 보면 「…余生免襤褸 汲汲事經籍 結交盡豪英 秉心尚強直 …」(태어나서 강보를 면하면서 급급하게 經籍에 종사했네. 영응호걸 다 사귀어서 마음 가짐 강직하게 했네.)¹⁴⁾와 같이, 高麗一代 뿐만 아니라 明나라의 張溥, 周伯, 高震志 等과도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圃隱과는 가까웠던 것 같다. 圃隱의 「江南憶陶隱」詩에서 「…只嫌詩病還依舊 他日煩君試一針」(다만 거리낌은 詩의 病 여전하니, 다른 날 그대에게 침 하나 괴롭히리.)¹⁵⁾라는 詩를 보더라도 두 분은 얼마나 交分이 두터웠던가 알 수 있다. 陶隱은 「東關至密水途中奉懷圃隱三峰」(陶隱集 2), 「中秋夜憶達可丈」(陶隱集 2), 「南行呈圃隱」(陶隱集 3), 「寄圃隱」(陶隱集 3), 「舟行自高郵過范光白馬二湖奉懷東亭圃隱二先生」(陶隱集 3) 등의 詩가 있고, 陶隱의 妻喪을 당했을 때 圃隱의 挽詞에 「陶齋幾度同鶉詠 却憶夫人主饋時」(陶隱齋에서 몇 번이나 술마시며, 詩를 읊었던가. 夫人께서 그 음식 차릴 때가 그림구나.)¹⁶⁾라는 詩로서도 그 友誼를 알 수 있다.

陶隱 行跡을 통해 볼 때 그는 事明派이면서 成均司成, 藝文館提學, 知密直司事, 同知春秋館事 等 文學에 종사하면서 明나라에서도 두 번이나 다녀왔으며, 그 곳 名士들과도 사귄 것이다. 그의 行身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만큼 진실인지 알기 어려우며, 그보다도 禮儀의 小節에 超脫한 文人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Ⅱ. 陶隱의 文學

1. 陶隱의 文學觀

13) 陶隱集 3. 得友人書：望極停雲眼欲穿 今朝消息喜相傳 縱然說得歸耕好 奈此曾無負郭田。

14) 陶隱集 1. 自訟。

15) 圃隱集 1. 江南憶陶隱：客路江南每獨吟 錦囊千首是光陰 只嫌詩病還依舊 他日煩君試一針。

16) 圃隱集 2. 李陶隱妻氏挽詞：君子百年偕老期 那知今日奄如斯 陶齋幾度同鶉詠 却憶夫人主饋時。

여기서 陶隱의 文學學觀이나 이름을 붙였지마는 陶隱이 직접 文學觀이라하고 말한 것은 없다. 다만 그의 글 중에 散在해 있는 內容을 간추려 整理해 보려는 것이다.

陶隱의 文學觀은 첫째 經傳 위주인 점, 둘째 詩를 性情의 正에 根本을 둔 점, 셋째 詩를 教化 위주의 効用面에 둔 점, 넷째 自然發露의 文學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經傳 위주의 文學觀부터 보기로 하는데 이에 앞서 陶隱 이전의 高麗時代文人들이 많이 引用했다는 책을 먼저 들어보아야 陶隱의 經傳 위주의 文學觀을 더욱 實感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文人들은 거의 中國文獻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 ① 李學士眉叟曰 杜門讀黃蘇兩集 然後言過然 韻鏘然 得作詩三昧¹⁷⁾
- ② 雖文順公 遍閱經史百家 綴芳染彩 故其辭自然富麗… 文順公曰 曩余初見歐陽公集 愛其富 再見得佳處 至于三 拱手歎服 又見梅聖俞集… 眞詩中之精雋也¹⁸⁾
- ③ 文安公常言 凡爲國朝制作引用古事 於文則六經三史 詩則文選李杜韓柳 此外諸家文集 不宜據引爲用¹⁹⁾

여기에 보면 李眉叟(毅宗 6, 1152~高宗 7, 1220, 李仁老의 字, 號는 雙明齋)는 黃山谷, 蘇東坡集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 李文順(毅宗 22, 1168~高宗 28, 1241, 李奎報의 諡號, 字는 春卿, 號는 白雲居士)은 經·史·百家도 遍閱했지마는 歐陽脩와 梅聖俞集을 좋아했으며, 文安公 俞升且(毅宗 22, 1168~高宗 19, 1232)은 文에 있어서는 六經·三史와 詩에 있어서는 文選·李·杜·韓·柳 外的 諸家文集은 참고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요약해서 보이면

17) 補閑集卷中.

18) 前揭書.

19) 前揭書.

高麗後期の 引用書籍 { 文: 六經(詩經, 書經, 易經, 春秋, 禮記, 樂記)
三史(史記, 漢書, 後漢書), 百家
詩: 文選, 李白, 杜甫, 柳子厚, 黃山谷, 蘇東坡,
歐陽脩, 梅聖俞

等이며 이 외에도 佛經으로는 主로 楞嚴經 같은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내충 조사한 것이므로 꼭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高麗時代의 漢文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위에서 본 마와 같이, 文人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六經이 들어 있기는 하나, 六經만은 強調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鄭圃隱 때에 오면 大學과 中庸을 研究하여 「理學의 祖」로 추앙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陶隱에 와서는 經傳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생각컨대 예전에 小學도 있고 大學도 있어서, 사람이 나서 8세부터 15세까지 灑掃應對에서 格物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 이르기까지 차례가 절대로 문란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사람이 學問을 함에 근본이 있어 學問의 성취함이 쉬웠는데, 후세에 와서는 學制가 밝지 못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순서를 뛰어넘어 마침내 아무 소득이 없게 되고 말았다. 늘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일찌기 옛날 學問을 하는 도리로서 편하지 아니함이 없었다.²⁰⁾ 즉 옛날에 사람이 8세가 되면 小學을 배워 灑掃應對로부터 시작하였고, 15세가 되면 大學을 배워 格物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道理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古人들의 學問을 하는 根本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陶隱은 爲學 次第를 거쳐서 躋等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小學은 權近, 權遇等都 重視했고, 李退溪도 「進聖學十圖割」에서 小學과 大學을 重要視했으며, 李栗谷은 擊蒙要訣 讀書章에서 「먼저 小學을 읽어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

20) 陶隱集 4. 贈朴生詩序, 予惟古者 有小學焉 有大學焉 人生自八歲而十有五其所以灑掃應對 以至於格致誠正修齊治平之地 截然不可紊 故人之爲學也有本 學之成也易 後世學制未明 陵節躋等 終無所得焉而已矣……每遇後余生者 未嘗不勉之以古者爲學之道。

을 높이고, 벗과 친하는 道理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익혀서 힘써 실행할 것이요. 다음에 大學과 或問을 읽어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로 잡고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참되게 알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²¹⁾고 했다. 이는 小學에서부터 大學을 읽어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陶隱의 經傳 위주의 文學論은 高麗의 文爲主에서 차차 儒敎의 道學的인 面으로 넘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당시 牧隱이 成均大司成이고 圃隱과 陶隱이 敎官으로 있을 때, 諸生들과 生活한 一面으로서도 알 수 있다. 「敎官이 새벽에 일어나서 館門에 들어가 청에 올라가면 學徒들이 차례대로 뜰 동쪽과 서쪽에 서서 拱手하고 몸을 굽혀 禮를 행해서 마치고 각각 공부하는 經을 가지고 공부했다.」²²⁾ 이것은 禮를 중히 여겨 禮를 행한 후에 經傳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讀書聲이 終日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여 斯文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變故로 해서 鄉里에 돌아가서 三年을 지나고 司成으로 召還되어 다시 돌아와 보니 오래토록 陶隱에 受業者가 없어 괴이히 여겨 朴子虛에게 알렸더니 子虛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본래 이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고 했다. 詞章이 일어남으로부터 學徒들이 아무개는 賦를 잘 하고 아무개는 詩를 잘 한다고 그리로 갔으니, 어찌 자네한테 가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고,兄이 아우를 가르치며, 친구끼리 서로 권함이 聲律對偶 밖에 벗어나지 못하니, 어찌 經學에 뜻을 두는 자가 있겠는가? 아! 學術의 변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에게 學徒가 없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²³⁾

詞章이 일어난 후로는 누구는 賦에 능하고 누구는 詩에 능하다고 하여 그리로 쏠리게 되고 父子, 兄弟, 朋友들도 聲律對偶만 勸勉하게 되어 經

21) 擊蒙要訣, 讀書章: 先讀小學 於事親 敬兄 忠君 弟長 隆師親友之道 一一詳玩而力行之。次讀大學及或問 於窮理 正心 修己 治人之道 一一眞知實踐之。

22) 陶隱集 4. 贈李生序, 敎官晨興 入館門 既升堂 學徒序立庭東西 拱手聲躬行禮訖 各執所治經。

23) 前揭書: 子虛笑曰 吾因以爲與昔異矣 自辭章興 學徒以某工賦 某工詩 而之也 奚子之之焉 父韶子 兄敎弟 朋友之相勸勉 無出聲律對偶外 其有志經學者哉 嗚呼學術之變至此 無怪乎余之無徒也。

學에 뜻을 두지 않음을 통탄하고 있다. 이것은 陶隱이 詞章을 배격하고 道學의인 面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글에서 古人의 「爲己之學」은 그 進修의 차례가 門階堂室과 같이 等級이 있어서 속히 하고 싶다고 해서 躡等할수도 없으며, 안 된다고 해서 폐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循循勉勉하여 門을 거쳐서 升堂入室하여 道德이 안에 彌覺하면 文章의 말해나움이 저절로 煥然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彫章 刻句만을 일삼아 試驗官의 法度에만 맞추어, 다만 속히 되려는 데만 힘쓰면 어찌 옛 것을 배우려는 자의 뜻한 바이겠는가? 내가 李生의 옛 學問에 뜻을 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아울러 斯文의 興替로써 告하노라.」²⁴⁾ 章句만 꾸미는 데 힘써 出世에만 뜻을 둔다면 이것은 學古者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文藝보다는 學問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牧隱이나 圃隱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陶隱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文學觀은 그대로 權近이나 鄭道傳에 이어져 鄭道傳은 天文, 地文, 人文 三才之文 中에서 人文을 詩書禮樂에 두었으며²⁵⁾, 權近도 「聖人猶天地也 六籍所載其理之備」²⁶⁾라는 經傳中心의 文學論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차차 내리워서 李退溪도 文藝에만 공교한 것이라든지 科第에만 힘쓰는 것을 배격하였다. 이로 보면 陶隱의 經傳爲主의 文學觀은 朝鮮朝의 性理學者들의 文學觀과 상당히 접근된 것을 알 수 있다.

두째로, 詩를 性情의 正에 근본해야 한다는 理論을 보기로 한다.

「詩經의 三百篇은 詩家의 祖宗이 된다. 聖人이 일찌기 말하기를 關雎詩는 즐거우면서 음란하지 않고, 애절하면서 상하지 않다 하고, 또 말하기를 詩經 三百篇을 한 말로 하던 '思無邪'라 하니, 이것은 詩를 論하는데 지극함이다. 詩道의 변함이 극심해서 論者들이 왕왕이 性情에 근본을 두지 않고, 다만 一字一句의 공교하고 줄렬한 것만을 추구하니, 내가 이것을恨

24) 前掲書：若彫章刻句以殉有司之三尺 惟速化之務焉 豈學古者志哉 余嘉生之志於古也 併以斯文興替告之。

25) 鄭道傳, 陶隱先生詩集序。

26) 權近, 牧隱先生文集序。

스럽게 여긴 지 오래다.]」²⁷⁾ 여기서 「思無邪」는 「論詩之至」라는 것과 詩道가 極變하여 性情에 根本하지 않고, 一字一句의 巧拙만을 推求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詩經에 「氓之蚩蚩」篇은 음란한 뜻을 가릴 수 없고, 曹孟德의 短歌는 篡奪의 逆謀를 숨길 수 없으니, 詩가 性情에 根本을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金可行 같은 이는 「爲人」, 즉 사람되기를 즐겨했고, 詩는 餘事인데도 「積於中 形諸外」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역시 이 글에서 「學問之功 卒至於思無邪 則詩不足論也」라 했는데, 여기서 물론 學問이라는 뜻은 性理學的인 또는 道學的인 學問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學問이 思無邪의 경지에 들어가서 性情의 正을 얻은 후면 詩는 저절로 된다는 견해다. 陶隱의 이러한 見解에 대해서는 牧隱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陶隱의 詩語가 이미 灑落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그 趨向이 오직 이에(思無邪) 있으니, 족히 사람의 性情의 바름에 감동을 주어 無邪한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²⁸⁾고 했고, 明使 周倬도 「涵泳性情 發爲詩篇」²⁹⁾이라고 했다.

栗谷은 情이 發하여 形氣에 얽매되지 않고 本然의 性을 잃지 않는 것을 善이라 하고, 情이 發하여 形氣에 얽매되어 그 本然의 性을 잃는 것을 惡이라 했는데,³⁰⁾ 陶隱의 詩는 이 正을 얻었다는 것이다. 朱子의 文學觀도 詩란 이 性情의 正을 얻어야 그 詩가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하다고 했는데, 陶隱의 文學觀도 이와 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 필연적으로 詩는 心性陶冶의 教化에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세로, 詩를 教化爲主에 둔 점을 들 수 있다. 陶隱은 위에 引用한 글에서 金可行의 詩稿를 보고 造語가 雅馴하고 寄興이 深遠하며 忠君愛親 尊師親友 등 世教에 관계되는 것이 열에 팔구가 되는 것을 보고, 「悚然歆」

27) 陶隱集 5. 題金可行詩稿後：三百篇爲詩家宗祖 聖人嘗論之曰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 又曰「詩三百 一言蔽之曰 思無邪 此論詩之至也 詩道之要極 而論者往往不本於性情 惟一字一句之工拙是求 余之病此久矣。」

28) 牧隱, 陶隱集跋：陶隱詩語既灑落 無一點塵 而其趣惟在於此 足以感人情性之正 而歸於無邪矣。

29) 周倬, 陶隱先生詩集序。

30) 李栗谷, 栗谷全書(性性情圖)。

했다고 한다. 그만큼 陶隱은 詩를 教化面에 중점을 두고 본 것이다. 이것은 禮記에 「溫柔敦厚詩教也」라는 말이나, 朱子の 詩經序에서 詩를 教化에 관련시킨 道學的인 文學觀과 통하는 것이다.

끝으로 自然發露의 文學觀을 보기로 한다. 그의 「新晴」(陶隱集 3)이란 詩에

爲愛新晴倚草亭(겐 경치 사랑하여 草亭에 기대었으니,)
 杏花初結柳條青(살구꽃 갓맺고 버들가지 푸르도다.)
 詩成政在無心處(詩는 무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枉向塵編苦乞靈(그릇되이 塵編을 향하여 피로이 열을 비는구나.)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詩란 억지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無關心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時代 역시 三隱의 한 사람인 圃隱과 비교해 보면 좋은 대조가 된다. 圃隱의 「吟詩」(圃隱集 1)라는 詩에

終朝高詠又微吟(아침내 크게 읊고 또 가늘게 읊어 보나,)
 苦似披沙欲鍊金(피로움이 흙사 모래를 헤쳐 얻금하듯.)
 莫恠作詩成太瘦(시 짓거로 너무 말랐다 피이히 여기지 마오,)
 只緣佳句每難專(다만 좋은 詩句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佳句를 찾기 위하여 너무 말랐다는 것은, 杜甫의 성품이 佳句를 탐내어 「語不驚人死不休」³¹⁾라는 詩作 태도와 가깝다면, 陶隱은 「句會飄然得, 詩因偶爾成」³²⁾이라는 濂洛派의 邵康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文學에서 氣爲主나 神志爲主나 하는 것은 오랜 論難이었는데, 陶隱은

31) 杜甫, 江上值水: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老去詩篇渾漫興 春來花鳥莫深愁 新添水檻供垂釣 故着浮槎替入舟 焉得思如陶謝手 令渠述作與同遊。
 李白詩選 p. 236 (文友書店, 台北 1956.)

李白軼事及遺跡三十六則: 嘗言「興寄深微 五言不如四言 七言又其靡也 況使束於聲調俳優哉」故戲杜曰「飯顆山頭逢杜甫 頭戴笠子日卓午 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蓋譏其拘束也(本事詩)。

32) 邵康節, 閑吟: 忽忽閑拈筆 時時樂性靈 何嘗無對景 未始便忘情 句會飄然得 詩因偶爾成 天機難狀處 一點自分明。

神爲主의 文學쪽 가가울 것 같다.

이것으로써 陶隱의 文學觀을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다. 高麗 後期에는 거의 東坡崇尚이었으나, 安珣이 朱子學을 輸入한 이후 高麗文學은 차차 性理學의인 文學으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陶隱의 文學傾向도 性理學의인 面으로 一貫된 것을 알 수 있다.

芝峰類說에 西京(前漢) 이전의 諸子의 글은 文은 남음이 있으나 道가 不足하고, 宋나라 이후의 글은 道는 남음이 있으나 文이 부족하다³³⁾고 했다. 이것을 우리 文學에 비추어 보면 高麗以前의 文學은 前者에 해당할 것이요, 高麗以後의 文學은 대체로 後者에 해당할 것이다. 麗末 三隱들이 過渡期에서 文과 道를 兼한 것이며, 陶隱의 文學論은 道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老子書를 불사르고자 하고³⁴⁾, 斯文 未伸을 恨하며³⁵⁾, 朱子가 다시 살아난다면 執鞭으로 평생을 마치겠다³⁶⁾는 뜻을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그의 文學觀을 알 수 있다.

2. 陶隱의 詩

崔簡易는 陶隱의 詩를 評하여

「牧隱之文 陶隱之詩 吾東第一家數也」³⁷⁾

라 했고, 牧隱도

「讀陶隱詩數篇 如珠走盤 如水出壑 而置之玉壺也」³⁸⁾

33) 李晔光：芝峰類說 8. 明人有言 西京以前 諸子之文 文有餘而道不足 宋以後之文 道有餘而文不足 余謂西京以前之文 非文有餘 質有餘也 宋以後之文 非文不足 質不足也 且道字 不如理字之尤顯着矣。

34) 陶隱集 1. 秋夜感懷十首, 蟠蟠柱下史 邁邁大道裂 口吐五千文 掀簸造化旋 清談已誤人 國家隨以滅 況乃雜符呪 神性不容說 安得火其書 坐令深燹法。

35) 陶隱集 2. 題旂檀殿：聞道旂檀木 浮來自鄺賓 土風尊像教 香火化都人 邪說誠難息 斯文久未伸 今來閉虛殿 恐是沒兵塵。

36) 陶隱集 1. 秋夜感懷十首, 皇天啓我宋 帝運升文明 異人乃間出 壘虎迭相鳴 濂溪發源深 河洛分派清 卓哉紫陽翁 起主斯文明 上以繼往聖 下以開太平 九京如可作 執鞭終吾生。

37) 崔笠：新刊陶隱詩集跋。

38) 牧隱：陶隱文集跋。

이라 했다. 陶隱의 詩를 우리 나라 第一人者로 잡은 것이나, 「如珠走盤」이라는 말만으로도 陶隱詩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陶隱集 三卷中에 실려 있는 詩를 보면,

卷一, 辭·五·七言古詩	$\left\{ \begin{array}{l} \text{辭: 1} \\ \text{五言古詩: 16} \\ \text{七言古詩: 14} \end{array} \right\} 31$
卷二, 五·七言律詩	$\left\{ \begin{array}{l} \text{五言律詩(排律包含): 114} \\ \text{七言律詩: 40} \end{array} \right\} 154$
卷三, 五·六·七言絕句	$\left\{ \begin{array}{l} \text{五言絕句: 19} \\ \text{七言絕句: 131} \\ \text{六言絕句: 2} \end{array} \right\} 152$

이와 같이, 詩만 총 335題이고, 辭가 한 篇 있다. 量的으로 보더라도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陶隱文學에 대해서 아직 發表된 論文이 찾아지지 않으므로, 먼저 過去 詩話들에 言及된 것부터 간추려 보기로 한다.

- ① 李邕村集之安寂 李陶隱崇仁之精鍊³⁹⁾
- ② 客又問 陶隱嶺南樓詩 押烟字「秋深官道映紅樹 日暮漁村生白烟」 浩亭河文忠公崙云「十里桑麻深雨露 一區山水老雲烟」孰優 予曰 陶固雅絕 得詩家法 終不若河之深遠 有宰相氣象⁴⁰⁾
- ③ 未有若牧隱之盛 陶隱之雅者焉⁴¹⁾
- ④ 或問於浩亭河公曰 陶隱詩文 刻意鍊琢 精深雅高 陽村詩文 平淡溫厚 成於自然 畢竟 陶優於陽乎 浩亭曰 陶之鍊琢 陽爲之有裕 陽之天機 陶終不能及也 且應制詩二十四篇 陽村爲之 而陶隱必不能也⁴²⁾
- ⑤ 圖隱鄭夢周 躍鱗清流 飛翼天衢
陶隱李崇仁 千乘雷動 萬騎雲屯⁴³⁾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보면, 결국 ①精鍊 ②雅絕 ③雅 ④刻意鍊琢 精深雅高 ⑤「千乘雷動 萬騎雲屯」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⑤의 경우는 詩보다 文에 해당된다고 보아야겠으며, 나머지는 詩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

39) 南龍翼: 壺谷詩話.

40) 徐居正: 東人詩話下.

41) 權近: 陶隱先生詩集序.

42) 徐居正: 東人詩話下.

43) 任環: 玄湖瑣談.

러니 陶隱詩格은 대체로 精鍊, 高雅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다음 陶隱詩의 淵源을 보면, 陶隱의 「次遁村韻呈四君子, 右陶隱」(陶隱文集 2) 詩에

獨擅文章繼牧翁(홀로 휘두르는 文章은 牧隱을 이었으니,)
 粲然星斗列簪中(찬란한 복두성이 가슴속에 늘어 있네.)
 更將六籍窓前讀(다시 六經 갖고 창앞에 읽으면서,)
 手自研朱考異同(손수 朱墨갈나 同異를 考察하네.)

이 詩에서 「繼牧翁」이라 했듯이, 陶隱의 文學은 牧隱을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신도 「崇仁이 서울에 있을 때 날마다 牧隱先生의 門下에 놀지 않은 적이 없었다.」⁴⁴⁾는 것을 보더라도 牧隱에 가장 영향이 많았던 것 같다. 「典故大方」 門人條 牧隱門人에 金九容(惕若齋), 朴尙衷(潘南), 李崇仁(陶隱), 朴宜中(貞齋), 河崙(浩亭), 尹紹宗(洞軒), 劉敞(仙庵), 鄭道傳(三峰), 崔慤(參知), 鄭可宗, 權近(陽村)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陶隱은 牧隱의 門人으로 交友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益齋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文忠公益齋先生挽詞」에서 일찌기 半面識이 있어, 또 칭찬말씀 들었네」⁴⁵⁾라는 말이 있는데, 李齊賢은 高麗忠烈王 13(1287)년에 출생하여, 恭愍王 16(1337)년에 세상을 떠났고, 陶隱은 忠穆王 3(1347)년에 출생하여 恭讓王 4(1392)년에 세상을 떠난 것과 비교하면, 益齋와 陶隱은 61세 차이이고, 陶隱이 21세 때 益齋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謚辭이기는 하지만은 半面識이라는 것을 보면 益齋에게는 영향을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다.

다음 中國詩人의 영향으로는 陶淵明을 무시할 수가 없다. 陶淵明은 晉末・宋初의 隱逸詩人이므로, 麗末・鮮初의 文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麗末 漢 文學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陶隱도 例外가 아니었다.

44) 陶隱集 2. 上宋簽書詩并序, 崇仁在京都 無日不遊牧隱先生之門

45) 陶隱集 2. 文忠公益齋先生挽詞, 北學遊中國 東遷相五朝 雄深追賈馬 正大失蕭曹 夢奠極間遠 修文地下遙 西風吹綿絮 淒斷楚辭招: 曾叨半面識 更獲一言譽 簪履文章盛 笑袞積累餘 蒼茫天北路 縹緲海東居 十載勤王事 煌煌太史書。

陶淵明의 死亡年代는 劉宋 文帝 元嘉 4년(427, 高句麗 長壽王 15, 新羅 訥祗王 11)인데, 그의 文集은 後梁 昭明太子 蕭統(501~531)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神文王 2년(682)에 國學에서 「文選」을 教授했는데, 이 「文選」에 陶淵明의 作品이 8篇이 있어, 이 때부터 우리는 陶淵明의 作品을 수입한 것이라 한다.⁴⁶⁾

「淵明晚歲愛吾廬, 不羨於我乎渠渠」(陶淵明은 만년에 자기 집을 사랑하여 크고 큰 집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陶隱集1. 李途傳乃翁書以詩答之.)라 하여 陶隱은, 世間榮利를 떠나서 斗室에서 餘生을 보낸 陶淵明을 사모한 詩이다.

南山雲一片(남산에 한 조각 구름,)
 無心時卷舒(무심하게 오락가락 하는구나.)
 開窓靜相待(창을 열고 가만히 서로 대하니,)
 俯首愧不如(머리 굽어 너만 못함이 부끄럽네.)⁴⁷⁾

이것은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雲無心以出岵」라는 글과 통하는 것으로 田園生活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雪盡梅溪清淺(梅溪에 물이 눈이 녹아 맑은데,)
 香凝竹屋氤氳(竹屋에 향기 더러 따뜻하구나.)
 美子翩然歸去(자네 훨훨 돌아가는 것 부럽구나,)
 宦情淡似秋雲(벼슬 뜻이 담담하여 가을 구름 같구나.)⁴⁸⁾

麗末에 隱遁思想이 高潮되자, 특히 詩淵明의 歸去來辭는 麗末文人들에 好感을 주었고, 陶隱도 역시 그러하였음을 이 詩로 알 수 있다.

林靜鳥聲盡(숲이 고요하니 새소리 다하고,)
 潭空天影閑(못은 비어 하늘 그림자 한가롭다.)

46) 「文選」이 三國統一 이전에 수입되었다는 것은 崔信浩教授의 「形成期漢文學의 樣式에 對하여」 p. 45. (聖心女大 聖心語文論叢 第4, 1977. 8)에言及되어 있고, 「文選」을 通한 陶淵明文學 수입은 李昌龍 敎수의 「高麗詩人과 陶淵明」 p. 118 (建國大 學術研究院 學術誌 16, 1973)에言及되고 있다.

47) 陶隱集 3. 絕句二十首用唐詩分字爲韻寄呈民望待制。

48) 陶隱集 3. 題康子野卷(號梅谿)。

因思陶靖節(인하여 陶淵明의)

籬下見南山(울타리 밑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한다.)⁴⁹⁾

陶淵明의 「雜詩」에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라는 유유자적한 전원 생활을 그리워 하고 있는 詩句가 陶隱詩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山川形勝更清秋(산천도 좋은데 다시 가을 드나,)
 病客無聊只臥遊(병든 나그네 할일없이 누웠구나.)

門外白衣誰解送(문밖에 白衣의 심부름꾼 누가 보낼까,)

籬東黃菊不曾收(울타리 동쪽에 누런 국화 그대로 두네.)⁵⁰⁾

이 詩도 陶淵明의 九月九日詩에 白衣送酒한 故事를 素材로 詩化한 것이다. 陶淵明文學의 일반적인 評은 冲淡하다고 하고, 그의 文學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田園生活의 憧憬, 愛酒, 愛柳, 愛菊, 愛松 等이다. 이 중에서 陶隱詩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主로 田園生活에 대한 동경과 愛菊 等이 나타난다. 이것은 陶淵明의 歸去來辭나 愛菊의 정서가 陶隱의 文學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음으로는

柳州遺稿氣凌雲(柳州의 遺稿 기운이 구름을 능가하니,)

晨起研硯至日曛(새벽에 일어나서 해질때까지 연구하네.)

自笑老生多技癢(우습다 늙은 사람 技癢이 많아서,)

從君又欲借蘇文(그대한테 또 蘇東坡集 빌리고자 하네.)⁵¹⁾

여기서 보면 柳子厚나 蘇東坡의 文學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東坡文學은 高麗竹高七賢 이후에 숭상되다가 후기로 오면서 性理學이 대두되자, 차차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陶隱에 아직 그 여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仍携數佚盛唐詩」⁵²⁾ 라는 것을 보면 盛唐詩에도 관심이 컸던 것이다. 위에서 예 든 것은 主로 詞章의인 면에서 본 것으로 陶隱의

49) 陶隱集 3. 失題三首。

50) 陶隱集 3. 次如大虛九口韻。

51) 陶隱集 3. 贈省敏近公禪。

52) 陶隱集 3. 李浩然送唐詩以詩答之

令子傳書慰所思 仍携數佚盛唐詩 杜門終日高聲讀 人道陶齋一段奇。

詩는 牧隱에서 배워 陶淵明과 東坡에 영향받은 것을 알 수 있거니와 陶隱의 文學觀에서 본 바와 같이 陶隱은 道學的인 면도 많다. 그의 詩에

生髮尙未燥(나서 머리카락도 마르지 않아,)
願曾追孔周(周公 孔子 뒤따르며 했네.)
中塗疲漫落(도중에 와서 확실히 피었으니,)
此計應謬悠(응당 이 계획 틀릴리로다.)⁵³⁾

이 詩를 보더라도 陶隱은 어릴 때부터 儒敎에 뜻을 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중에 如意치 못하게 것을恨한 것이다.

山隱雲氣山頭雪(산허터엔 구름이요, 산봉우리엔 눈이 쌓여,)
間若高低縹緲中(결은 높고 낮게 아득하네.)
未是山靈專事佛(산령이 佛陀만 돕지 않아,)
數峰來繞一儒宮(두더 봉 내리워서 儒宮을 둘러 있네.)⁵⁴⁾

陶隱의 詩中에 僧侶나 佛敎와 관계 있는 作品이 대략 65題 정도이다. 量的으로 보더라도 佛敎와 관계는 무시할 수 없지마는, 이 詩는 마치 安旼의 夫子廟有感詩와도 같은 內容이다.

斯文欲墜地(斯文이 장차 땅에 떨어지려 하네,)
玄聖應時生(공자께서 때 맞추어 나셨다.)
周流聘列國(列國에 두루 다녔,)
遙遙指蠻荆(멀리 蠻荆까지 가셨네.)
庶將啓聵聵(귀머저미를 열어주려니,)
茶蓼交中情(안타까운 마음 가슴속에 어렸네.)
嗚呼吾已矣(아! 내가 그만두요서,)
歸歟托遺經(돌아가 옛 經書에나 의탁하리.)
包羲迄文武(包羲에서 文王 武王까지)
煌煌集大成(빛나게 集大成하셨도다.)
所以生民衆(이러므로 사람이 생긴 이래)
極口無能名(입을 다 모아도 이름붙일 수 없네.)⁵⁵⁾

53) 陶隱集 3. 絕句二十首用唐詩分字爲韻寄呈民望待制.

54) 陶隱集 3. 望瑯山謁賦.

55) 陶隱集 1. 秋夜感懷十首.

이 詩에서도 孔子의 道統을 소재로 해서 읊은 것이고,

圓象運不已(하늘이 운행을 쉬지 않아,)
 日星垂光茫(해와 별이 광채를 전했네.)
 至人自有德(至인은 스스로 덕이 있어,)
 出言皆成章(말을 하면 모두가 文章이 되네.)
 典謨含元化(典謨는 元化를 포함했고,)
 雅頌謠謳鏘(雅頌은 음률에 어울렸네.)
 奈何操觚子(어찌하여 글짓는 이들은)
 彫篆愁眉陽(아로새기노라 간장을 괴롭히는가.)
 嵐花對烟鳥(남기 연기 꽃 새 대맞추니,)
 嗷唧同寒謠(적적거리는 소리 찬 쓰르라미 같구나.)
 願言溯本源(원컨대 근원에 거슬러 올라,)
 一息到崑崙(단숨에 崑崙에 이르러야지.)⁵⁶⁾

이 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道學的인 正音과 雅頌을 회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鄭道傳의 陶隱集序에서 「사람의 意表에 超出하고 群書를 널리 보아 한번 보면 곧 기억했다. 저술한 詩와 文 若干篇은 詩經의 比興과 書經의 典謨에 근본을 하고 和順이 쌓이고 英華의 발해남이 또한 모두 禮樂中으로부터 나왔으니 道에 깊은 이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⁵⁷⁾ 한 것도 陶隱의 詩가 性理學的인 面이 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詩에는 楞嚴經 같은 것도 몇 군데 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다음 陶隱詩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題僧舍」(陶隱集 3) 詩와 「鳴吁鳥」(陶隱集 1)인 것 같다. 「李陶隱 崇仁이 麗末 諸學士中에서 가장 後進이다. 文譽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옛 그림을 벽에 걸러 두고 그 위에 詩 한 首를 쓰기를 ‘산 북쪽 산 남쪽 좁은 길이 갈렸는데, 소나무 꽃이 비에 젖어 어지러이 떨어지네, 道人이 물을 길어 茅屋으로 돌아가니, 한 줄기 푸른 연기 흰 구름을 물들이네’ 라고 했는데, 牧隱이 그것을 보고 唐聲

56) 上同

57) 陶隱先生詩集序, 又超出人意表 博極群書 一覽輒記 所著述 詩若文若干篇 本於詩之比興 書之典謨 其和順之積 英華之發 又皆自禮樂中來 非深於道者能之乎。

에 아주 가깝다고 하니, 드디어 그 名聲이 나게 되었다.⁵³⁾고 했다. 陶隱詩를 唐詩에 가깝다고 한 것은 牧隱뿐만 아니라, 明吏 張溥도 「往往絕頂唐人」⁵⁹⁾이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嗚呼島」詩가 유명한 것 같다. 「嗚呼島」는 齊 義士 田黃의 故事를 읊은 것으로 徐居正은 이에 대해 「李陶隱과 鄭三峰이 當代에 名聲이 비슷했는데, 李陶隱은 清新하고 高古하나 雄軍함이 모자라고, 鄭三峰은 豪逸하고 奔放하나 鍛鍊함이 적어 서로 우열이 있었다. 그러나, 牧隱이 매양 題評을 할 때마다 李陶隱을 앞세우고 鄭三峰을 뒤로 했다. 하루는 牧隱이 陶隱의 「嗚呼島」詩를 보고 極口 칭찬했다. 며칠이 지난 후에 三峰이 역시 「嗚呼島」詩를 지어 牧隱을 뵈고 말하기를 ‘우연히 이 詩를 옛 사람의 詩稿中에서 얻었다’고 했다. 牧隱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말로 잘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君들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이요, 陶隱詩와 같은 것은 잘 얻을 수 없는 것이다’고 했다. 후일 三峰이 나라 일을 맡자, 牧隱이 여러 번 顯失됨을 당했다가 굳굳히 죽음관은 면하고 陶隱은 마침내 그 禍를 당했으나 論者들이 말하기를 ‘관드시 「嗚呼島」詩가 재앙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⁶⁰⁾고 했다. 이 詩話의 사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지마는 「嗚呼島」詩가 이만큼 문제작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陶隱의 詩는 牧隱을 계승하여 여기다가 晉末·宋初의 陶淵明과 蘇東坡의 영향을 받고, 다시 性理學의인 詩風이 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諸家의 詩評에서도 精爽, 高雅하다고 하며, 때로는 唐風이라 하고, 또 우

53) 李岸光：芝峰類說 13. 李陶隱崇仁 在麗末諸學士中最後進 文藝未著 一日揭古畫筆于壁 書一絕其上曰「山北山南細路分 松花含雨落紛紛 道人汲水歸茅舍 一帶青烟染白雲」牧隱見之 以爲逼唐聲 名遂盛

59) 張溥：陶隱集跋

60) 徐居正：東人詩話上

李陶隱 鄭三峰 齊名一時 李清新高古而乏雄軍 鄭豪逸奔放而少鍛鍊 互有上下 然牧老 每當題評 先李而後鄭 一日牧隱 見陶隱嗚呼島詩 極口稱 嘆 間數日 三峰亦作嗚呼島詩 謫牧老曰 偶得此詩於古人詩稿中 牧隱曰 此眞佳作 然君輩亦俗爲之 至如陶隱詩不多得也 後三峰當國 牧隱憂遭 顯 蹟 僅免其死 陶隱終蹈其禍 論者以爲 未必嗚呼島詩爲之祟也。

리 나라 「第一家數」라고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한다. 處容歌를 소재로 한 「十一月十七日夜聽功益新羅處容歌聲調悲壯令人有感」(陶隱集 2), 鞦韆을 소재로 한 「端午」(陶隱集 3)와 「八關會日呈諸院諸公」(陶隱集 3)等 民俗을 소재로 한 詩가 더러 보이는 것은 益齋와 牧隱을 이어온 일련의 詩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陶隱의 文

陶隱의 散文에 대해서 먼저 그 種類別, 또는 그 篇數를 보면, 文은 二卷으로 되어 있다.

卷四	① 記: 7 (14%)
	② 誌: 1 (2%)
	③ 序: 12 (24%)
卷五	④ 傳: 2 (4%)
	⑤ 題後: 3 (6%)
	⑥ 議: 1 (2%)
	⑦ 行狀: 1 (2%)
	⑧ 讚: 1 (2%)
	⑨ 說: 1 (2%)
	⑩ 箋: 1 (2%)
	⑪ 表: 17 (33%)
	⑫ 牋: 4 (8%)

이와 같이 총 51편이다.

陶隱의 文을 보기 위해서 먼저 陶隱 이전의 우리 漢文學의 樣式 발달을 보면 崔致遠의 「桂苑筆耕」에 ① 表 ② 狀 ③ 奏狀 ④ 堂狀 ⑤ 別紙 ⑥ 檄書 ⑦ 書 ⑧ 委曲 ⑨ 舉牒(舉牒詞, 敕牒詞) ⑩ 齋詞 ⑪ 祭文 ⑫ 疏 ⑬ 記 ⑭ 啓 ⑮ 詩 등으로 되어 있고, 「孤雲先生文集」에는 詩, 雜詠, 賦, 序, 表, 狀, 啓, 碑銘, 記, 讚, 願文, 傳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漢文學의 初期의 樣式이다. 다음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와서는 ① 古賦 ② 古律 ③ 上樑文 ④ 口號 ⑤ 頌 ⑥ 讚 ⑦ 銘 ⑧ 韻語 ⑨ 語錄 ⑩ 傳 ⑪ 說 ⑫ 序 ⑬ 雜文 ⑭ 記 ⑮ 牋文 ⑯ 雜著 ⑰ 書 ⑱ 狀 ⑲ 表 ⑳ 牋 ㉑ 教書 ㉒ 批答 ㉓ 詔書 ㉔ 麻制 ㉕ 官誥 ㉖ 碑銘 ㉗ 墓誌 ㉘ 誄書 ㉙ 哀詞 ㉚ 祭文

① 道場齋醮疏祭文 ② 佛道疏 ③ 釋道疏祭祝 ④ 釋道疏」等이다. 이것을 위의 崔致遠과 비교해 보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陶隱의 스승인 「牧隱集」에 보면 ① 辭 ② 賦 ③ 操 ④ 詩 ⑤ 記 ⑥ 序 ⑦ 說 ⑧ 表 ⑨ 牘 ⑩ 教書 ⑪ 頌 ⑫ 乞書 ⑬ 讀 ⑭ 銘 ⑮ 箴 ⑯ 辨 ⑰ 問答 ⑱ 書後 ⑲ 題後 ⑳ 跋 ㉑ 題 ㉒ 書 ㉓ 祭文 ㉔ 碑銘 ㉕ 浮屠銘 ㉖ 塔銘 ㉗ 神道碑銘 ㉘ 墳墓記 ㉙ 墓誌銘 ㉚ 墓表 ㉛ 傳 ㉜ 家傳 等이다. 여기서 든 文學樣式들을 陶隱과 비교하면 陶隱은 李奎報와 牧隱에 비하여 단조로운 편이다. 이것은, 陶隱은 牧隱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관계도 크지 않은가 한다. 陶隱의 文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記

記는 본래 叙事 위주로 中國에서는 漢이전보다 唐이후에 성행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記가 있었다. 陶隱集에 있는 記文으로는 ① 復齋記 ② 秋興亭記 ③ 衿州安義寺塔重新記 ④ 迎日縣新城記 ⑤ 星州夢松樓記 ⑥ 霜竹軒記 ⑦ 龜興郡神勒寺大藏閣記 等이다. 이 7篇中에서 ③⑥⑦은 佛敎과 관계 있는 작품으로 특히 ⑦의 「龜興郡神勒寺大藏閣記」는 牧隱의 大藏經 印戒과 藏經까지의 경위를 記述한 記文으로 3막 7집 4字의 長文으로 된 名文이다. 이 記文을 통해서 보면 陶隱은 佛敎과 관계도 알 수 있으며 文辭도 뛰어난 것이다.

② 誌

誌는 다른 文集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陶隱集에서도 「珍泳圖誌」한 篇만 보인다. 간단하게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陶隱文學을 論하기는 어렵다.

③ 序

序는 臨別贈言하는 「贈序」, 記事를 하는 「雜記」에 가까운 序, 詩文의 첫머리에 쓰이는 「序跋」類 三種이 있으나, 陶隱集에 있는 序는 贈序가 많은 편이다. 그의 序로는 ① 送李浩然赴合浦幕序 ② 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③ 送李侍史知南原序 ④ 送李慕之赴清州牧詩序 ⑤ 送尙州牧使鄭公詩序 ⑥ 贈李主序 ⑦ 送日本澤有天祐上人還國序 ⑧ 送息庵遊方序 ⑨ 賀姜大言詩序

⑩ 賸朴生詩序 ⑪ 送雨千峰上人遊方序 ⑫ 太古語錄序 等이다. 序 12篇 中에서 詩와 관계가 되는 序가 5篇으로 단연 많다. 이것은 陶隱이 交遊面이 라는지 관심이 詩쪽으로 많이 기울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陶隱의 文學觀을 알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序라는 것에 유의할 때, 이것은 다른 어느 作品보다도 陶隱文學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資料가 된다.

④ 傳

傳은 본래 史傳, 家傳, 托傳, 假傳으로 나누는데 「秦·漢 以後로부터 史家가 아니면서도 傳을 짓는 이는 극히 적으며, 「家傳」에 이르러서는 絶無的이던 것이 뒤에 「唐書」 「藝文志」에 나타나더니, 宋·元 以後에는 비로소 이 體가 많았다.」⁶¹⁾는 것을 보더라도 家傳은 후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陶隱集에 나타난 것으로는 「草屋子傳」, 「裴烈婦傳」等 家傳에 해당하는 것 두篇만 있다. 대개 散文에 관심이 많은 文人들은 韓退之의 文章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 毛穎傳과 같은 假傳에 영향을 많이 받아 假傳을 쓰는 경향도 있었지마는, 陶隱은 詩에 主力했기 때문인지 假傳은 보이지 않는다.

⑤ 題後

題後는 跋文과 같이 글 뒤에 쓰는 것인데, 陶隱集에는 「題金可行詩稿後」, 「題千峰詩稿後」, 「題明極卷後」 세 篇이 있다.

⑥ 議

議는 「周到하게 사람들과 相議하는 것을 議라고 한다. 議는 宜를 말하는 것이니, 사리의 타당함을 살핀다는 뜻이다.」⁶²⁾고 한다. 陶隱集에 議는 「士大夫廟祭儀」라는 禮學에 관한 것으로 한 篇만 보인다.

⑦ 行狀

行狀은 漢代에는 「狀」이라고만 하다가, 六朝以後에 「行狀」이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의 行誼, 爵里, 生卒의 年月을 서술하여 남의 글을 받으려 하므로 「狀」이라 했다고 한다.⁶³⁾ 陶隱集에는 「先大夫人行狀」한 篇만 있는데

61) 李家源：漢文体研究 p. 639 (韓文學研究, 서울 探求堂, 1969)

62) 劉勰：文心雕龍, p. 93. 議對 第24(台北, 世界書局, 1972), 周爰諮謀是謂爲議 議之言宜 審事宜也。

63) 李家源：前掲書, p. 639.

자기 어머니 行狀이므로 그의 家庭生活을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⑧ 讚

讚은 「내용은 美惡 양면에 걸쳐 있는데 이것 역시 頌의 變體이다」⁶⁴⁾ 했고, 또 「대개 頌이란 功德을 찬양한 것이니, 讚도 역시 그러한 類이다」⁶⁵⁾ 고 했다. 陶隱은 「鄉僧止菴寫余陋眞因作讚」이라는 글 한 篇만 있다. 여기서 자신은 達可(圃隱의 字) 卓越, 子虛의 續密, 天民의 精敏, 仲臨의 俊逸, 可遠의 溫雅, 宗之의 該博에 비하면 碌碌(옥 같은 돌)가 美玉 속에 섞인 것과 같으나, 東國에 태어나서 中國을 談論하기 좋아하고 혹은 바닷가에 쫓겨나도 더 슬퍼한 바 없고, 혹은 조정에 올라가도 더 기뻐한 바 없고, 오직 조심스럽게 스스로 수양하여 내 마음에 속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의 謙抑한 態度는 그의 文學觀에서처럼 存心養性の 性理學的인 면이 보이기도 한다.

⑨ 說

說은 「說은 悅이다. 兌는 口와 舌을 나타내므로 말로 사람을 喜悅하게 하는 것이다」⁶⁶⁾ 고 했지만, 說은 辨說的인 뜻이 많이 있다. 陶隱集에는 「忠原判官李君及字說」이라는 字說 한 篇만 보이고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⑩ 箋

箋은 「進重刊陳澍集說禮記箋」한 篇만 있다.

⑪ 表

「表는 그 정성을 진달하는 것」⁶⁷⁾이라 하고, 또 「表는 要請을 진정하는 것」⁶⁸⁾이라고도 한다. 陶隱集에 나타난 것으로는 ① 賀朝廷平定雲南發遣梁王家屬安置濟州表 ② 賀登極表 ③ 賀册皇太后表 ④ 賀郊祀改元表 ⑤ 賀正表 ⑥ 賀正表 ⑦ 冬至表 ⑧ 八關表 ⑨ 賀節口表 ⑩ 陳情表 ⑪ 請承襲表 ⑫ 請諡表 ⑬ 請承襲表 ⑭ 謝恩表 ⑮ 謝恩表 ⑯ 請衣冠表 ⑰ 請冠服表 등 17篇

64) 劉綬: 前掲書 頌讚第 9. p. 132(台北, 世界書局, 1972). 義兼美惡 亦爲頌之變耳.

65) 崔滋: 補閑集中. 夫頌者褒美功德 諡亦其流.

66) 劉綬: 前掲書 p. 69 論說 第 18. 說者 悅也 兌爲口舌 故言喜悅擇

67) 崔滋: 補閑集中. 表以達其說.

68) 劉綬: 前掲書. p. 86 章表 第 22. 表以陳請.

이 있는데, 陶隱의 散文中에서 表가 제일 많이 차지 한다.

⑫ 牋

「牋이란 것은 表이니 건국 심정을 표현하여 기술하는 것」⁶⁹⁾이라 하고, 「魏・晉 때에 이 体가 많았으나, 太子・諸王에게 썼을 뿐이었던 것이 元에 이르러서 「賀表」와 같이 썼으니, 이것은 古法이 아닌 듯 싶다.」⁷⁰⁾고 했으나, 陶隱集의 牋은 賀表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① 賀正牋 ② 賀正牋 ③ 賀冬至牋 ④ 賀親祀太廟牋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본 「表」와 「牋」은 거의 당시 中國과 관계되는 글이다. 高麗 中葉을 넘어서면서 兩宋・遼・金・蒙古等 強國을 섬기면서 文詞로 칭찬 받고 國患도 풀리게 되었으니, 詞賦라고 해서 배수롭지 않게 여기겠느냐고 했다.⁷¹⁾ 그만큼 表와 牋은 國家 詞命으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 했던 것이다. 麗末에 元・明의 틈바구니에서 牧隱이 거의 이 일을 맡았고, 陶隱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高麗史에 「우리 國家가 明나라를 섬긴 이래 表箋 詞命이 李崇仁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恭愍王이 諡號를 얻은 것과 上王이 襲爵받은 것은 모두 李崇仁 文章의 힘이고, 金・銀・馬・布의 歲貢을 면제 받은 것도 역시 李崇仁의 힘이다. 皇帝가 여러 번 文章의 아름다움을 일컬어 우리 나라에 인물이 있다고 한 것도 역시 李崇仁의 功이다. 李崇仁의 文章이 簡潔高古하여 間世의 뛰어난으로 中國에도 있기 어려우니, 國家의 詞命은 이 사람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⁷²⁾고 했다. 여기서도 國家의 詞命은 陶隱이 아니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陶隱의 文 51篇中에 21篇(41%)이 表・牋이다. 이것은, 國家의 詞命은 陶隱이 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陶隱이 文에 뛰어 났다는 뜻이 될 것이다.

「星山 陶隱先生이 高麗末에 나서 天資가 英邁하고 學問이 精博하며 廉

69) 劉鏐：前揭書 p. 98. 書記 第25 牋者表也 表識其情也。

70) 李家灝：前揭書 p. 625.

71) 徐居正：東人詩話下。

72) 高麗史 列傳 第28. 李崇仁, 惟我國家 臣事大明以來 表箋詞命 多出崇仁之手 恭愍得諡 上王襲爵 皆崇仁文章之力也 得免歲貢金銀馬布 亦崇仁之力也 皇帝 屢稱文章之美 謂我國有人物者 亦是崇仁之功也 崇仁文章 簡潔高古 間世挺生 中國罕有 國家詞命 不可不使此人掌之也。

洛性理의 說에 근본하여 經·史·子·集의 百家의 書에 채를지 않음이 없고, 조애가 깊고 所見이 더욱 높아 卓然이 正大의 域에 섰다. 浮屠 老·莊의 글까지 그 是非를 연구하지 않음이 없어, 피어나 文辭가 되대 古高雅潔하고 卓偉精緻하다. 古律併麗에 이르기까지 妙함에 이르러 森然히 法度가 있다. 牧隱李文靖이 매양 칭찬하기를 이 사람의 文章은 중국에서 찾더라도 世代마다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海東에 文士가 있는 이래로 그에 비할 만한 이가 적을 것이다. 일찍이 두 번을 사신으로 明나라에 가서 中國士大夫들이 그 저술을 보고 그 辭氣에 집하고는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豫章 周公 億, 吳興 張公 溥, 嘉興 高公 巽志 같은 이가 모두 序文과 跋文을 써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으니, 이는 어찌 다만 一國에만 추중받고 일시에만 유명할 따름이라? 참으로 前光을 가리고 獨步한 것이다. 高麗가 나라를 둔 五百年에 休養生息하고 涵養作成하여 人才의 많음과 文獻의 아름다움이 중국에 비겼으나, 세상에 이름난 이가 牧隱의 盛함과 陶隱의 雅함과 같은 이가 있지 않다. 이는 말기에 이르러 그 문장이 더욱 振發한 것이니, 수백년의 휴양한 여운이 마침내 이에 모여서 끝남인가?」⁷³⁾

이 글은 물론 陶隱의 詩와 文을 통틀어 말한 것이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詩보다는 文의 설명에 가까울 것이다. 이를 보면 文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지마는 文學的인 가치면에서 볼 때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4. 高麗漢文學과 陶隱의 位置

陶隱의 文學史的인 位置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高麗時代의 일반적인 文

73) 權近: 陶隱先生詩集序

星山陶隱李先生 生於高麗之季 天資英邁 學問精博 本之以濂洛性理之說 經史子集百氏之書 靡不貫穿 所造既深 所見益高 卓然立乎正大之域 至於浮屠老莊之言 亦莫不研究其是否 數爲文辭 高古雅潔 卓偉精緻 以至古律併麗 皆臻其妙 森然有法度 韓山牧隱李文靖公 每加數賞曰 此子文章 求之中國 世不多得 自有海東文士以來 鮮有其比者也 嘗再奉使如京師 中原士大夫 觀其著述 接其辭氣 莫不歎服 有若豫章周公億 吳興張公溥 嘉興高公巽志 皆有序跋以稱其美 是豈唯見重於一國 能鳴於一時而已者哉 眞所謂掄前光 而獨步者矣 高麗有國五百年 休養生息 涵濡作成 人才之多 文獻之美 侔擬中華 然其名世者 未有若牧隱之盛 陶隱之雅者焉 是至衰季 而其文章 乃益振發 是必數百年 休養生澤 卒萃於是而終之也歟。

風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時代에 처음으로 科擧가 실시된 것은 光宗 9년(958) 5월에 後周의 歸化人 雙翼의 건의에 의해서다. 이를 계기로 高麗初期에는 詞章中心, 文藝中心의 경향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 때 科擧로는 製述科, 明經科의 兩大業과 雜科로 醫業,卜業이 있었으나, 이 중에서 製述科가 더 중요시 되었다. 高麗時代의 製述科 급제수는 6,167명인데 明經科 급제수는 415명인 것으로도⁷⁴⁾ 製述科가 얼마나 비중이 컸는가를 알 수 있다.

그 考試科目은 光宗 9년(958) 製述科에 詩, 賦, 頌, 時務策을, 光宗 11년에는 詩, 賦, 頌만을, 成宗 6년(987)에는 詩, 賦, 時務策만을, 穆宗 7년(1004) 3월부터는 初場에 經義, 中場에 詩, 賦, 終場에 時務策을 시험보았다.

穆宗 이후로는 三場連券法이 실시되었으나 과목은 가끔 바꾸었는데, 仁宗 17년(1139) 10월에는 初場에 經義, 中場에 時務策, 終場에 詩・賦를, 毅宗 8년(1154) 5월부터는 다시 初場에 時務策, 中場에 經義, 終場에 詩・賦를, 忠穆王 即位年(1344)부터는 初場에 六經義, 四書義, 中場에 古賦, 終場에 策問 등으로 되어 있다.

明經科의 考試科目은 仁宗 14년(1136)에 제정된 규정에 의하면 첫날에 尙書, 周易 각 10조, 다음 날에 毛詩 10조를 시험 보여 각각 6조 이상 통하고 사흘째에 다시 周易을 비롯하여 毛詩, 春秋, 禮記 等 10机를 읽어서 6机 이상 읽고 그 의미를 통해야 했다.⁷⁵⁾ 雜科의 考試科目은 여기서 보려는 文學과는 관계가 적으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明經科도 製述科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거시험이었으나 차차 가면서 製述科가 중요시되고 여기에 考試科目은 詩, 賦, 頌, 策 等の 詞章(文藝)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高麗 光宗이 비로소 科擧를 설치하여, 詞賦를 사용하였다. 睿宗은 文雅를 좋아하여 날마다 文士들을 모아 唱和하였고, 이어 仁・明 역시 儒敎를 숭상하였다. 忠烈王은 詞臣들과 더불어 唱酬하여 龍樓集

74) 李成茂 : 韓國의 科擧制度 p.102 (한국일보社 1976. 4)

75) 李成茂 : 前掲書 p.184.

이 있다. 이로서 풍속이 詞賦를 숭상하여 對句 쓰기를 힘썼는데, 朴文烈 寅亮, 金文成 緣, 金文烈 富軾, 鄭諫議 知常, 李大諫 仁老, 李文順 奎報, 金內翰 克己, 金諫議 君綏, 俞文安 升旦, 金貞肅 仁鏡, 陳補闕 渾, 林上庠 椿, 崔文清 滋, 金英憲 之岱, 金文貞 坵와 같은 이는 더욱 뛰어난 사람들이다.⁷⁶⁾」고 했다.

高麗文學의 경향을 시대별로 특징을 보면 初期(제4대 光宗 9.958~18代 毅宗 24, 1170)에는 科擧制度가 정착되면서 일반적으로 詞賦를 숭상했고, 中期(19代 明宗1, 1171~24代 元宗15, 1274)에는 武臣執權期로 文人들이 山野에 숨어 儒者가 佛者에 儒經을 배울 지경이었으며, 竹高七賢이 結成되고 東坡文學을 숭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末期(25代 忠烈王1, 1275~34代 恭讓王4, 1392)에는 對外的으로는 元의 支配下에 들게 되었다가 明이 등장하고, 對內的으로는 武臣政權이 沒落하며, 思想的으로는 朱子學이 輸入되는 때의 文學이다.

初期의 科擧制度로 인한 詞賦 숭상은 그 세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다. 東人詩話에서 지적했듯이 심지어 仁·明·忠烈王 때까지 詞賦 抽對에 힘썼다하고 三國史記를 편찬한 散文家인 金富軾까지 詞賦에 뛰어난 것으로 말했다. 崔冲의 私塾에 九經·三史를 중심으로 詩賦와 詞章을 추가한 것도 文藝면은 무시못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대개의 高麗文風을 짐작할 수 있는데, 補閑集에서 그 구체적인 文人들을 찾아보면

1) 4代 光宗 5年 科擧 실시 이후 王融, 趙翼, 徐熙, 金策은 재질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2) 5代 景宗, 8代 顯宗을 거치는 몇 대 사이에 李夢游, 柳邦憲 등이 文으로 유명했고, 鄭倍傑, 高凝은 詞賦로 진출했으며, 崔冲은 儒學을 일으켜 儒敎가 大興했다.

76) 徐居正: 東人詩話下, 高麗光宗始設科擧, 用詞賦. 睿宗喜文雅. 日會文士唱和繼而仁明. 亦尚儒雅. 忠烈與詞臣唱酬. 有龍樓集. 由是俗尚詞賦. 務爲抽對. 如朴文烈寅亮. 金文成緣. 金文烈富軾. 鄭諫議知常. 李大諫仁老. 李文順奎報. 金內翰克己. 金諫議君綏. 俞文安升旦. 金貞肅仁鏡. 陳補闕渾. 林上庠椿. 崔文清滋. 金英憲之岱. 金文貞坵. 尤其傑然者也.

3) 11代 文宗 때에 와서는 훌륭한 文物이 粲然히 갖추어졌는데, 당시 冢宰인 崔惟善은 王을 돕는 인재로 저술이 정묘하였고, 平章事 李靖恭과 崔爽, 參政인 文正, 李靈幹과 鄭惟產, 學士 金行瓊, 廬坦들이 比肩하여 나타났다.

4) 그 (文宗) 후 朴寅亮, 崔思齊, 崔思諒, 李諒, 金良鑑, 魏繼廷, 林元通, 黃瑩, 鄭文, 金綠, 金商祐, 金富軾, 權適, 高唐愈, 金富轍, 金富伯, 洪灌, 印份, 崔允儀, 劉義, 鄭知常, 蔡寶文, 朴浩, 林椿齡, 林宗庇, 芮樂同, 崔誠, 金精, 文淑公(崔惟清의 시호)父子, 吳先生(吳世才)兄弟, 學士 李仁老, 文安公 俞升旦, 貞肅公 金仁鏡, 文順公 李奎報, 承制 李公老, 翰林 金克己, 諫議 金君綏, 史館 李允甫, 補闕 陳渾, 劉冲基, 李百順 兩司成 咸淳, 林椿, 尹于一, 孫得之, 安淳之 등이 있어 漢文 唐詩가 더욱 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高宗初까지의 文人들이다.

그 후 元宗을 거쳐 忠烈王代에 들어 朱子學이 輸入되어 安珣, 白頤正, 權溥, 李齊賢, 李穀 등을 거쳐 三隱, 朴尙哀, 朴宜中으로 이어지면서 文風이 크게 振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陶隱 이전의 高麗時代의 漢文學의 대략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陶隱의 文學史的 位置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에 들어서 侍中 金富軾 李學士 奎報가 더욱 뛰어난 자이고, 近世 大儒에 鷄林 李益齋 같은 이가 있어, 처음으로 古文의 學으로 倡始하고, 韓山 稼亭 李公, 京山 樵隱 李公이 따라서 和應했다. 지금 牧隱 李先生이 일찌기 家訓을 이어받아서 北으로 중국에 가서 배워 師友 淵源의 바를 얻고, 性命 道德의 說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는 諸生들을 맞아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興起한 이가 烏川 鄭公達可, 京山 李公吉安, 晉陽 河公大臨, 潘陽 朴公誠夫, 永嘉 金公敬之, 密陽 朴公子虛, 永嘉 權公可遠 茂松 尹公紹宗 등이다. 비록 나의 불초함으로도 역시 數君의 列에 끼었는데, 子安氏는 精深明快하여 諸子보다 탁월하여 先生(牧隱)의 說을 들으면 默識心通하여 번거러이 再請하지 않았다. 그 혼자 일은 바에 있어서, 또 남의 意表에 뛰어났다. 널리 많은 서적을 다 보아 한번 보면 곧 기억했다.

저술한 詩와 文 약간 篇은 詩經의 比興과 書經의 典謨에 근본하여 그 和順의 쌓이고 英華의 발해남이 모두 禮樂으로부터 나왔으니 道에 깊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⁷⁷⁾

이 글에서 보면 한 時代를 대변해 줄 만한 文人들——金富軾, 李奎報, 李齊賢, 李穀, 李穡, 鄭夢周——을 들면서 陶隱을 들어, 눈이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陶隱은 분명히 麗末을 대변해 줄 만한 文人이다. 더욱이 「講明則同圃隱 著述則同陶隱」⁷⁸⁾이라 한 것은 陶隱이 저술면에서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이다. 陶隱은 國內에서만 文名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中國에서도 名聲을 날렸다. 明使 周伯은 「내가 王命을 받들고 高麗에 使臣으로 왔는데, 子安과 더불어 접할 수가 있었다. 서로 만났을 동안 손을 잡고 심회를 털어 놓아 평생 친하던 친구처럼해서,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을恨했다. 훗날 詩를 내어보이는데, 읽어보니 偉襟이灑落하고 그 말이 華而不浮하고 質而不俚하여 和平中에 奇麗가 발해 나오고 엄정한 밖에 유한함이 있으며, 忠君 愛國 隆師 親友의 뜻이 말밖에까지 발해 나왔다. 아! 三韓은 먼 지방인데 子安의 學問, 情性이 이와 같은 수 있으랴? 斯文을 振拔시키고 나라의 근본을 扶植시킴에 있어 子安을 두고 누가 하겠는가?」⁷⁹⁾

77) 鄭道傳: 陶隱先生詩集序

入本國曰 金侍中富軾 李學士奎報 其尤者也 近世大儒 有若鷄林益齋李公始以古文之學倡焉 韓山樸亭李公 京山樵隱李公從而和之 今牧隱李先生 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 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既東還 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 京山李公子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誠夫 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 永嘉權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 亦獲廁於數君之列 子安氏精深明快 度越諸子 其聞先生之說 默識心通 不煩再請 至其所獨得 又超出人意表 博極群書 一覽輒記 所著述詩若文若干篇 本於詩之比興 書之典謨 其和順之積 英華之發 又皆自禮樂中來 非深於道者能之乎.

78) 卞季良, 陶隱先生詩稿序, 牧隱先生 稱之曰 橫說堅說無非當理 推爲吾東方性理之學之祖 及其跋三峰先生詩集 則有曰 講明則同圃隱 著述則同陶隱 蓋深有所服也.

79) 周倬: 陶隱先生詩集序

僕奉命使高麗 得與子安接見 邂逅之頃 握手論心 若平生契 第恨相知之晚也 他日出所作詩見示 讀之令人襟度灑然 其辭皆華而不浮 質而不俚 發奇麗於和平之中 寓優柔於嚴正之外 且思君愛國隆師親友之意 益於言表 吁 三韓遠邦之地 而子安學問情性有如是耶 其振拔斯文 扶植邦本 舍子安其誰歟.

라고 이눌 평가하였고, 역시 明使 張溥도 「옛날 君子는 和順이 속에 쌓여
말해서 文章이 되어, 歌咏에 나타나니, 모두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인정
을 통달하여 世敎에 관계가 있었다. 후세에 文飾만 하는 자는 스스로 詩
人 流麗의 一家法을 얻었다고 하나 理의 精粗와 情의 雅正에는 논할 겨를
이 없다. 내가 使臣으로 高麗에 왔다가 그 提學 李公 子安이 나에 陶隱齋
吟稿 한 帙을 보였는데 그 吐辭辭가 渾成中에 精確하고 命意가 雅淡한 곳
에 深遠하여 往往 꼭 唐人의 類가 되어, 저 옛 사람의 훌려버린 기름국이
나 얻어 마셔, 모방이나 일삼는 자와 같이 비해서 논 할 수 없다」⁸⁰⁾ 라
고 높이 평가했고, 明使 高巽志도 陶隱集跋文에서 陶隱文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高麗史에도 「高皇帝가 일찌기 李崇仁이 지은 表文을
보고 이를 아름답게 여겨 말하기를 ‘表의 文辭가 참으로 절실하다’ 했고
中國 士大夫들이 그 著述을 보고 탄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⁸¹⁾ 고 한 것
을 종합해 보면 陶隱은 단순히 우리 나라에서만 文名을 떨친 것이 아니라
中國에까지 유명했으며, 麗末의 文運을 짊어지고 麗末文學에 찬란한 꽃을
피운 大文人이다. 朝鮮朝 太宗이 옛날 座主인 陶隱을 追憶하여 權近에 命
하여 陶隱集을 編次케 한 것도 단순히 私情에 치우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陶隱의 文學 이념어났음을 알 수 있고, 또 權近 卞季良은 「陶隱이
牧隱보다 낫다」⁸²⁾ 고 한 것까지 보인다.

그런데, 麗末 三隱의 文學을 比較해 보면 牧隱은 儒·佛을 겸하여 文쪽
에 가까운 편이고, 圃隱은 文·道를 겸했다고 보아지며, 陶隱 역시 文·
道を 겸했으나, 圃隱보다는 牧隱쪽에 가까와 보인다. 때문에 陶隱은 圃隱

80) 張溥：陶隱集跋

古之君子 和順積中 而發爲文章 形於咏歌 皆足以明物理達人情 有
關於世敎 後代之競葩蘂者 自以爲得詩人流麗之家法 於理之精粗 情之邪
正 不遑論也 余奉使至高麗國 其提學李公子安 示余陶隱齋吟稿一帙 愛其
吐辭精確於渾成之中 命意深遠於雅淡之際 往往絕類唐人 視彼之蹈巧齊澤
規規摹倣者不可同日語矣。

81) 高麗史列傳 第28, 李崇仁, 高皇帝 嘗覽崇仁所撰表 嘉之曰 表辭誠切 中原士
大夫 觀其著述 亦莫不歎服。

82) 世宗實錄：前揭，近與季良 皆以崇仁爲賢於穰矣。

과 牧隱의 中間的인 位置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음 朝鮮朝의 文運을 짚어준 卞季良으로 이어진다.⁸³⁾

IV. 結 語

高麗의 漢文學은 우리 文學史 全般을 통해서 보더라도 華麗한 時代이며 특히 高麗末期에 와서는 더욱 꽃을 피웠다. 그 代表的인 사람을 흔히 三隱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三隱의 한 사람인 陶隱의 文學을 考察한 것이다.

陶隱은 일찌기 星山(星州)君 李元具의 맏아들로 태어나, 賢母의 膝下에서 成長하였다. 그리고는 13세에 監試에合格했고, 15세에 登第했으며, 23세에는, 中國의 科擧에 응시할 文士를 뽑았는데 首席으로合格했으나, 나이 25세 미만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天資가 穎悟한 분인데나 官職生活을 보면 成均司成, 藝文館提學, 知密直司事, 同知春秋館事 등을 歷任했기 때문에 모두 文學과 關係를 떠난 적이 없었다. 여기에다 牧隱과 같은 스승과 圃隱, 金九容, 朴宜中 등과 學官으로서의 交分도 두터웠다. 明나라에도 두 번이나 다녀오고, 明使 周億, 張溥, 高輿志 등과도 사귀어, 모두 陶隱集序跋을 써서 陶隱文學을 極讚하기도 했다. 이러한 資質에 이러한 師友를 가진 陶隱의 文學은 그의 在世時에 벌써 國內外에 稱頌을 받은 것이다.

陶隱의 文學觀은 ① 經傳爲主의 文學觀, ② 詩를 性情의 正에 根本을 둔 점, ③ 詩를 教化爲主의 効用面에 둔 점, ④ 自然發露의 文學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陶隱 以前에 高麗文士들이 愛讀했다는 書籍은 主로 文에 있어서는 六經・三史요, 詩에 있어서는 文選・李白・杜甫・柳子厚・黃山谷・蘇東坡・歐陽脩・梅聖俞集 등이었다. 그러나, 忠烈王 以後 朱子學 輸入 以後로는 麗末漢文學은 朱子の 文學觀과 接近된는데, 陶隱文學觀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陶隱의 文學觀은 麗末의 다른 文人들에 비하여

83) 權罷: 春亭集序, 春亭卞先生 天資明敏 學問精博 年未弱冠 師事圃隱陶隱 及我先人陽村文忠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學問을 하는데 있어서는 小學에서부터 大學으로爲學次第가 있어서 躋等함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 學問이 안에 쌓이면, 文學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陶隱의 文學作品은 어떠한가. 陶隱은 濂洛性理說에서부터 經·史·子·集의 百家書와 佛·老·莊의 說도 通하지 아니함이 없어, 말해서 文章이 되었기 때문에 高古 雅潔하다고 한다. 그의 詩는 336題로 「東方第一家數」라 할 만큼 뛰어났고, 그의 詩는 牧隱을 이었다. 그리고 麗末에는 晉末 宋初의 隱逸詩人인 陶淵明文學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陶隱 역시 그러하였고, 蘇東坡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도가 道學, 또는 性理學的인 濂洛風의 氣像이 융합되었다고 하겠는데, 자신도 正音과 雅頌을 希求한 것이든지, 그의 文學觀을 보더라도 濂洛의 경향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때문에 陶隱의 詩는 精鍊 高雅하다고 하고 明使 張溥 같은 사람도 「絕類唐人」이라고 까지 한 것이다. 또 陶隱詩에 處容歌나 韋瓘과 같은 民俗을 素材로 한 것은 李益齋나 李牧隱의 脈絡을 이은 흔적이라 생각되며, 대표작품으로는 「題僧舍」, 「鳴呼島」詩가 아닌가 한다.

陶隱의 文은 51篇인데, 일찌기 돌아간 때문인지 李奎報나 牧隱과 같이 浩瀚하지는 않으나, 記, 誌, 序, 傳, 題後, 議, 行狀, 讚, 說, 箋, 表, 牋 등이 있다. 이 중에 序가 12篇(24%)이고, 다시 이 序 중에서도 詩와 관계되는 것이 5篇이나 되는 것을 보면, 交遊面이나 관심이 詩쪽에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表가 17篇(33%), 牋이 4篇(8%), 합해서 21篇(41%)이다. 高麗 中葉으로 넘어오면서 兩宋·遼·金·蒙古·元·明等 복잡한 對外 關係가 있었는데 陶隱이 이 國家의 詞命을 거의 맡았기 때문에 散文으로는 表·牋이 많았던 것이다.

高麗初期에는 科擧制度 실시 이후 製述科가 중시되면서 詞章中心, 文藝中心으로 詩·賦의 對句에 힘쓰다가, 朱子學 輸入 이후는 安珦, 白頤正, 權溥, 益齋, 稼亨을 거쳐 三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陶隱은 三隱의 한 사람으로 文學的인 위치는 뚜렷하며, 國內外에 名聲을 떨친 분이다. 牧隱은 儒·佛을 겸하여 文쪽에 가깝다면, 圃隱은 文·道를 겸했고, 陶隱 역시 文·

道를 겸했다고 할 수 있으나, 圃隱보다는 牧隱쪽에 가까운 詩人이다. 그리고 王朝가 交替된 후에는 文權을 權陽村 卞季良에게로 넘겨준 麗末의 大詩人이라 할 것이다.